



**2만불 시대**  
**중소기업이 일어납니다**



**중소기업청**  
**브리핑**

제34호 2004년 9월 17일 (금) 공보담당관실 TEL.042-481-4330~32 / FAX.042-472-3264

## 산업연수제도 개선

### - 임금체불이행 보증보험 등 도입 -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연수생에게도 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이행보증보험 등이 적용된다.

중소기업청은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의 병행 실시에 따라 산업연수제도의 운영 합리화와 산업연수생의 권익 증진을 위해 '외국인산업연수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산업연수생이 취업자로 전환할 경우 거쳐야 했던 연수취업교육과 자격시험 제도를 폐지해 산업연수생과 연수업체의 부담을 줄였다.

또한 산업연수 및 취업자에게 출국만기보험·신탁 및 귀국비용보험·신

탁을 적용하여 사업장 이탈방지 및 권익을 증진하고, 연수취업자의 임금에 대해서도 체불이행보증보험을 적용하여 임금체불을 방지토록 했다.

아울러 이탈률이 높은 송출기관에 대한 계약해지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송출비용을 송출국가 책임하에 합리적으로 산정토록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국가가 책임지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송출기관의 책임을 강화했다.

송출국가가 신규로 송출기관을 지정하거나 송출기관별 배정인원이 과다할 경우, 연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하여 송출기관 선정 등에 투명성을 제고키로 했다.

이외에도 연수업체 선정시

산학연기술개발사업 수행업체 및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등에 대해서도 우대키로 했다.

중기청은 이번 지침개정 시행과 병행하여 연수·취업자에 대한 문화교육 등을 통해 문화적 충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강화 방침과 활용시 문제점을 설명해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법고용 근절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에서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분야에 산업연수생 2만3천명을 포함, 총 4만명의 외국인력을 올해 안에 공급할 계획이다.

▶ 기업성장지원국  
인력지원과(042-481-4393)

## 대·중소기업 협력 펀드 250억원 결성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호 협력하여 우수 기술을 산업화하고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협력 펀드'가 결성된다.

중소기업청은 LG전자(대표 백우현) 및 LG벤처투자(사장 구본천)와 함께 14일 'LG 대·중소기업협력펀드' 결성식을 갖고 본격적인 펀드 운영에 들어간다.

이 펀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100억원, LG전자가 125억원, 펀드운용사인 LG벤처투자가 25억원을 각각 출자해 7년간 운영되며 LG전자 협력업체에 전체의 50%가 투자되는 등 대기업과 연계된 중소기업에 투자된다.

주요 투자대상 분야는 휴대폰 등 이동통신 단말기 및 디스플레이 분야로 △최근 3년 이내 정부 기

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성공한 기업 △이전받은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상용화하려는 기업 △이노비즈기업 △신기술 벤처기업 △대기업과 거래하는 기업으로서 부품 소재를 국산화하였거나 협약체결을 통해 국산화를 추진하는 기업 △대기업에서 분사한 기업 등이다.

또한 운용기간 7년중 최초 5년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협력회사에 대한 투자 및 육성에 중점을 두고, 이후 2년간은 기업공개 및 M&A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금 회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LG벤처투자(주) 구본천 사장은 "정부와 대기업이 앞장서서 출범하는 이 펀드에 대한 업체의 기대가 자못 크다"며, "이 펀드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대

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협력하여 Win-Win하는 모범 사례를 많이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관련업계에서는 이 펀드의 운영을 통해 총 1250명의 직접적인 고용 창출 효과와 투자업체의 2500억원(업체당 100억원)의 직접적인 매출증대 및 전후방 연관효과가 있는 파생기업에 대한 매출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부가적으로 부품·소재 국산화를 통한 수입대체와 산업재산권 상용화를 통한 신기술 상품화, 대기업의 경영·기술지도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기술혁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창업벤처국  
벤처진흥과  
(042-481-4419)**

# 시험장비 개방, 중소기업 신제품개발에 기여

## - 역대의 고가장비 내맘껏 이용 신제품개발 술술 -

지방중소기업청의 ‘시험 연구장비 무료 이용개방’이 지방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은 신제품개발에 필요하지만 고가여서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구입하기 어려운 장비를 쉽게 이용하여 개발비용을 절감해 주기 위해 11개 지방청의 5천여 모든 장비를 무료로 100% 개방하고 있다.

이러한 장비 전면개방으로 중소기업의 개발비용이 연간 30여억원 절감되는 것으로 추산되며,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된 사례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고압 실린더 전문생산업체인 알로포즈(주)(전북

완주 소재)는 전북지방청의 발광분석기, 원자방출분광분석기 등을 활용하여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이음매 없는 고압 알루미늄 실린더’를 국내 최초로 개발에 성공하여 지난해 10월 미국 교통성(DOT)의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지난해 170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였고 올해에는 처음으로 미주지역에 수출을 시작하여 수출액이 1400만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볼밸브 전문 생산업체인 극동산업사(대구 소재)는 대구·경북지방청의 진원도측정기를 활용하여 볼의 진원 오차를 당초 25 $\mu$ m에서 15 $\mu$ m이하로 정밀가공할 수 있는 기술 확보로 밸브의 핵심성능인 기밀안전성을 개선함으로써 년 5억원이상의 매출 신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중기청에서는 지방청이 실질적인 지방중소기업의 ‘R&D 지원센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유장비 100% 무료 이용개방(휴일, 야간 포함)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지방청을 중심으로 대학·연구기관 간 ‘지역장비공동활용 네트워크’를 더욱 활성화하여 대학·연구기관 장비의 중소기업 이용개방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각 지역내 장비수요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산업특성에 맞는 시험·연구장비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갈 방침이다.

▶ 기술지원국  
시험평가과  
(042-481-4452)

## 싱글PPM 품질혁신 무료 e-mail 교육

중소기업청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중소기업 CEO 및 임직원들의 품질혁신 인식을 제고하고 품질관리기법을 활용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e-mail을 통해 품질혁신 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제너럴 일렉트릭, 도요타자동차 등 선진기업의 품질혁신 사례와 시사점, CEO의 품질혁신 철학과 전략, 과학적인 품질관리 기법, 품질소프트웨어 활용방법 등 중소기업들이 품질경쟁력을 향상하는데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은 9월 20일부터 대학교수와 전문 컨설턴트 등 품질혁신 전문가들이 매주 1회씩 중소기업 CEO 및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생산제품 100만개중 불량품을 한자리 숫자(10개 미만)로 줄이고, 장기적으로 불량률 제로의 품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싱글PPM품질혁신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교육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대한상공회의소 싱글PPM 품질혁신 추진본부 (<http://sppm.korcham.net>)로 신청하면 된다.

▶ 기술지원국  
시험평가과  
(042-481-4458)

## 해외규격 전자도서관 운영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152개국의 해외규격 33만 건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해외규격 열람 전자도서관'을 운영한다.

해외규격 인증획득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은 전자도서관에서 수출대상국 해외규격 대부분의 규격 초록 및 원문 검색, CE, CCC 등 각 규격별 해외 인증획득 절차 및 상세한 규격정보, 전자부품 DB, IEC기술규격해설서 등 시험에 관한 기술자료 등을 검색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인터넷 ([www.standard.or.kr](http://www.standard.or.kr))에 우선 회원 가입 후 검색 엔진 및 키워드를 사용하여 국제규격분류체계(ICS) 기준으로 3단계 검색이 가능하며, 중소기업이 실제 규격을 구입할 때 원가의 약 10%정도로 구입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 시험원(02-860-1377)에 문의하면 된다.

▶ 기술지원국  
시험평가과  
(042-481-4457)